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 한자리에...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막

광주 1298명 참가...육상 김국영 한국신·3관왕 관심
전남 1693명...볼링 여고부 3인조 "5연패 문제없다"



‘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25·광주시청), ‘양궁 여제’ 기보배(27·광주시청), 광주시청 ‘육상 남매’ 김덕현(30), 배찬미(여·24), ‘유도 간판’ 김성연(24·광주도시철도공사), ‘꽃미남 저격수’ 김준홍(25·KB국민은행) 등 광주·전남 출신 한국 간판 스포츠 스타들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제 96회 전국체육대회’가 16일 강원도 강릉에서 막을 올린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5시에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세계중심 강원에서, 함께 뛰자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강원도 일대 38개 경기장에서 고등·대학·일반부로 나눠 전국 17개 시·도 임원 6237명, 선수 1만8543명 등 2만4780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47개 경기 종목 중 바둑과 수상스키, 탁구는 시범 종목으로 치러지며 핸드볼과 기계체조, 복싱·펜싱·요트·배드민턴·볼링·하키 등 8개 종목은 사전 경기 형태로 진행됐다.

광주에서는 선수·임원 등 1298명, 전남은 1693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광주 선수단은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한국신기록을 낸 김국영(100m)을 비롯, 김덕현(멀리뛰기)·배찬미(세단뛰기), 기보배(양궁) 등 각 종목에서 선수들의 선전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15위)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전정원(문정여고 3년)·김승이(서진여고 3년)가 사전경기로 치러진 볼링 여고부 2인조에서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광주체고 펜싱팀이 첫 금메달을 안기는 등 선수단의 분위기 상승을 이끌었다. 대한민국체육상까지 거머쥔 김국영의 100·200m 한국신기록 경신 및 3관왕(100·200·400m) 달성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고등부도 38개 종목에 482명의 선수가 참여, 소프트볼(명진고), 레슬링 자유형(박은영 광주체고 1년), 유도(김한수 광주체고 3년) 등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전남 선수단도 종합 11위 달성을 목표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동요·김진영(고흥산업과학고 3년), 장미나(전남조리과학고 2년)가 볼링 여고부 3인조에서 ‘전남의 전국체전 볼링 여고부 3인조 5연패’를 달성, 순조로운 출발을 한 상태다.

인천아시아계임 볼링 금메달리스트 박종우(광양시청) 선수와 최복음(광양시청) 선수의 다관왕이 점쳐지고 인천아시아계임 사격 2관왕 김준홍(KB국민은행)의 금빛 전망도 어느때보다 밝다는 게 전남 선수단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5일 강원도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제96회 전국체육대회가 개막했다. '강원, 그 소중한 추억'을 주제로 식전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강릉=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지에 주니어 골프대회’ 열린다

29·30일 광주컨트리클럽
신지에 개최비용 1억 쾌척

‘지존’ 신지에의 이름을 딴 ‘신지에 & 스리본드 주니어 토너먼트’가 광주에서 열린다. 신지에가 지역 골프 유망주들을 위해 대회 개최 비용을 쾌척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신지에 & 스리본드 주니어 토너먼트(JI-YAI SHIN & ThreeBond Junior Tournament)’가 오는 29일과 30일 광주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다. 광주·전남 협회에 등록된 광주·전남 소재 남녀 재학생이 참가해 초·중·고등부로 나눠 샷대결을 벌이게 된다.

경기는 이틀간에 걸쳐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점이 나올 경우 연장전 없이 카운트 백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각부 남녀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장학금이 수여된다. 2~5위에게는 상장 및 장학금이 돌아간다. 또 남녀 종합 우승자와 준우승자 등 총 4명에게는 신지에와 6일경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특전이 제공된다.

광주·전남 소재 재학생으로 소속 시도 협회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참가를 원하는 선수는 오는 19일까지 광주광역시골프협회(FAAX, 062-374-1171)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광주골프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 062-374-0035)



지역 골프 발전을 위해 대회를 마련한 신지에에는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나서 후배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 팬 사인회 등을 통해 지역 골프팬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갖는다.

대회를 주관하는 광주시골프협회의 양진호 전무는 “박세리, 신지에 등을 통해 세계 최강의 골프 실력이 대를 이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랭킹 1위, 상금 1위를 기록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선수가 여는 대회라 더욱 의미가 있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해 또 다른 신지에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지역 골프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성현이 15일 인천 영종도 스키야72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1라운드 2번홀에서 힘차게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1R

미셸위·렉시 톰프슨 압도

박성현(22·넬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정상급 선수와 맞붙어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다.

올 시즌 KL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둔 박성현은 15일 인천 스키야72 골프장 오션코스에서 개막한 LPGA 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장타자 미셸 위(26)와 렉시 톰프슨(미국)과 대결을 펼쳤다.

미셸 위는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256야드를 기록해 장타 부문 29위, 톰프슨은 267야드를 날려 4위에 오른 선수다. 박성현은 톰프슨과 5~10야드를 두고 앞서거나 뒤서거나하면서 결코 밀리지 않는 장타 대결을 벌였다.

아이언샷의 정확도는 박성현이 두 선

수를 오히려 압도했다. 박성현은 거의 모든 샷을 홀 3~5m에 떨어뜨렸고, 3m 이내의 버디 기회는 거의 놓치지 않았다.

위기관리 능력도 돋보였다. 7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으로 그린을 노렸던 박성현의 볼은 그린에 미치지 못하고 깊은 벙커 지역에 떨어졌다. 박성현은 자신의 키보다 높은 위치의 그린을 향해 볼을 거의 수직으로 띄워 홀 2m에 떨어뜨린 뒤 버디를 잡아내 갤러리의 박수를 받았다.

무섭게 타수를 줄여나간 박성현은 16번홀(파4)에서 러프에서 친 두 번째샷을 홀 2m에 붙인 뒤 또 한타를 줄여 2012년 이 대회 1라운드에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세운 18홀 코스 레코드(9언더파 63타)와 타이틀을 이뤘다. 17번홀(파3) 그린 가장자리에서 퍼트를 시도해 볼을 홀을 살짝 빗겨갔지만 18번홀(파5)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어 10언더파 62타의 코스 레코드를 작성했다. /연합뉴스

‘클래식 잔류’ 부산을 잡아라

K리그가 더욱 뜨거워진다. ‘우승’과 ‘강등’을 놓고 엿갈린 싸움이 펼쳐진다.

17일부터 프로축구 K리그 스플릿 라운드 일정이 시작된다. 33라운드 정규라운드 결과에 따라 1~6팀과 7~12위 팀이 각각 A와 B그룹으로 나눠 앞으로 5라운드를 더 치른다. A그룹에서는 우승팀이 탄생하

고, B그룹에서는 강등팀과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팀이 나온다.

10위(8승11무14패·승점 35)로 33라운드 일정을 끝낸 광주 FC는 스플릿 라운드 B 그룹에서 남은 시즌을 보낸다. 클래식 잔류 확정지은 승부에서 결정될 수 있다. 광주는 17일 오후 2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K리그 스플릿 라운드 돌입

광주FC, 내일 원정경기
승점 3점 추가면 잔류 확정

에서 부산 아시안스타드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스플릿 라운드의 첫 번째 경기이자 가장 중요한 승부이기도 하다. 광주는 11위 부산에 승점 11점차로 앞서있다. 최하위인 12위는 K리그 챌린지로 바로 강등되고, 11위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친 뒤야 잔류와 강등이 결정된다. 잔류 마지막전은

10위.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부산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더한다면 두 팀의 승점은 14점차까지 벌어진다. 부산이 남은 4경기에서 전승을 거두고, 광주가 4연패에 빠진다고 해도 만회할 수 없는 점수 차가 된다. 광주는 클래식 리그 잔류를 첫 판에 확정지겠다는 각오다.

남기일 감독은 정규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오로지 부산전 만을 생각하고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첫 상대가 부산이 됐다.

광주는 지난 4일 수원전이 끝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회복했다. 앞선 4경기에서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면서 잠잠하던 공격도 살려놓았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김호남이 공격을 책임지고 있고 배태광 공격수 조용태도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전을 치렀다. 비장의 무기인 송승민도 지난 수원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부담을 털어냈다.

조기 잔류를 놓고 벌이는 승부인 만큼 선수들의 집중력이 중요하다. 앞선 맞대결에서 양 팀 감독은 모두 세트피스에 중점

을 두고 경기를 풀었다. 순간의 집중력에 따라 승패가 엿갈릴 수도 있다.

기적 같은 승강쇼로 클래식 무대로 돌아온 광주는 도전의 2015시즌을 보내고 있다. 올 시즌 가장 중요한 대결을 앞둔 광주가 기본 좋은 잔류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33라운드 패배로 B그룹으로 내려온 전남 드래곤즈는 18일 오후 2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최하위 대전 시티즌과 만난다.

/김여울기자 wool@